



# 전주매일



## 군산조선소 '완전 정상화' 첫걸음

제이오션중공업-HD현대중공업, 자산 양수도·사업협력 계약...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합의각서 결실

제한적 가동에 머물러 온 군산조선소가 마침내 '완전 정상화'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산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본관에서 HD현대중공업과 제이오션중공업 간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및 사업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유)과 HD현대중공업이 체결한 자산 양수도 합의각서(MOA)의 결실로, 4월부터 이어진 군산조선소 자산에 대한 현장실사와 협상 제이오션중공업이 출범하면서 본격 계약 체결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계약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 금석호 사장(양도인)과 제이오션중공업 하화정 대표(양수인)를 비롯해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박희승 국회의원 등 국회·정부·지역 정·관계와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군산조선소 완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가동 중단 이후 지역 경제에 깊은 아쉬움을 남겼고, 2023년 블록 생산 재개로 재가동의 물꼬를 텃으나 선박 건조까지 이어지지 못해 완전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성사된 이번 계약은 조선업 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춰 군산 조선산업 전반의 재도약을 이끌 결정적 토대로 평가된다.



지난 26일 오후 2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본관에서 HD현대중공업과 제이오션중공업 간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및 사업협력 계약'이 체결됐다. (사진 왼쪽부터,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하화정 제이오션중공업 대표,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사진=제이오션중공업 제공)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이번 본 계약은 군산 경제의 부활과 조선 생태계 복원을 알리는 가슴 벅찬 이정표"라며 "취임과 동시에 전북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군산조선소의 조

기 정상 가동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건조의 최대 관문인 선수금급보증(RG)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금융권을 적극 설득하고,

숙련 인력의 신속한 확보와 협력사 지원, 친환경·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에 모든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청탁·알선 대가 금품 등 수수... 혐의 모두 유죄

법원 "사적 이익 위해 공적 의사결정 과정 훼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대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회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게 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감사 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보캐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삼진 전 부장 검사로부터 공권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회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안일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과거 행적이 왜곡돼 회대의 악녀로 낙인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변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 '왕의 공원 프로젝트' 전면 재조정

전주시장직 인수위, 전체 52개 중 21개 사업 민선9기 공약 연계 역사·문화 자산 활용 콘텐츠 중심 문화·관광 정책 본격 추진

문화·예술 분과는 시민성(시민주권), 고유성(전주다움), 투명성(열린행정)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역사문화도시, 생활 문화 예술진흥, 관광문화산업, 생활체육 등 15개 분야의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객의 체류 관광을 활성화

계획이다.

전주시립예술단 상설 공연을 확대하고 전라감영·경기전·오목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한편, 거리에술 거점 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주의 대표 먹거리인 백반과 가맥,

막걸리에도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미식 콘텐츠와 축제를 개발함으로써 전주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왕의 공원 프로젝트도 재검토했다. 전체 52개 사업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31개 사업은 정비하고, 후백제 왕도 유적 발굴 조사 등 21개 사업은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정책과 내 왕의

공원 프로젝트팀은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분산 이관해 조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 스포츠 교실 확대와 고령층 건강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영화 도시 특위(위원장 정승은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교수)도 영화 도시 전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하는 창작생태계 조성 전주국제영화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강화, 시와 후반제작 중심의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콘텐츠 기업 육성 등 영화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5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운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은 "전주 시민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체류와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시설 건립보다 전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은 세계 영화 도시 특위 위원장도 "영화 도시 전주의 자산을 시민과 창작자,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기반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영화 문화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